

“인신매매·취업사기·강제노동, 정부 방관·자본 방조”

조선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보고회 ... “임금인상·노동환경 개선, 노동력 확보 가능”

한국 조선업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며 신규인력이 필요하지만, 조선사들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친다. 정부와 조선사는 노동환경 개선과 임금인상 대신 저임금 착취구조와 이주노동자를 대거 활용하고 있다.



도 31.3%나 됐다.

노동조건과 만족도 조사에서 ‘기회가 된다면 조선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직하고 싶은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 63.7%가 이직하고 싶다고 했다. 이유로 ‘노동강도에 비해 임금이 낮아서’가

금속노조는 올해 3월부터 조선소 이주노동자 노동실태를 조사했다. 조선소 이주노동자는 ‘고액수수료’에 팔리고, ‘이중계약’에 당하고, ‘사업장이동제한’에 묶인 참혹한 현실에 처해 있었다.

금속노조와 정의당은 10월 19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조선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보고회’를 열고,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재벌·대기업 조선소에서 일하는 10개국 410명의 이주노동자 설문 조사와 22명의 심층 면접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조선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올해 8월 기준 13,258명으로, 지난해 6,078명에서 두 배 이상 증

가했다. 조선업 이주노동자는 지난 3년간 매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가 2022년부터 조선업 인력난 해소방안의 하나로 외국인력 도입확대를 전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임금·노동시간 조사 결과 임금 형태는 시급제가 85.9%로 나타났다. 평균시급액은 9,680원으로 최저 9,560원에서 최대 11,200원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받는 이들이 77.1%로 가장 많았다. 근속이 올라갈수록 시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인상 폭은 매우 낮았다.

조선소 이주노동자는 대부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응답자 49.1%는 주 4회 이상 잔업을 한다고 답했다. 한 달에 쉬는 날은 평균 4.3일로, 월평균 3일 이하 쉬었다는 이

67.2%로 가장 많았다. 조선소에서 가장 힘든 점은 ‘위험한 작업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에서 특히 일반 기능인력 비자(E7-3)로 한국에 오는 이주노동자의 송출·송입 수수료 문제를 지적했다. E7-3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조선소 취업을 위해 적게 800만 원에서 많게 1,200만 원까지 송출업체에 줘야 했다.

한 이주노동자는 심층면접에서 “에이전트한테 스리랑카 돈으로 300만 루pee(약 1,200만 원) 줬어요. 그거를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설명은 없었어요. 돈 없으니까 집 담보해서 은행 대출을 받았어요. 다른 친구들은 집도 팔고, 오토바이도 팔고 왔어요. 우리는 매달 50~60만 원을 은행으로 보내야 해요. 36개월

동안”이라고 토로했다.

김그루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서 부산지회(준) 조합원이자 이번 조사 연구위원은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이 일반 기능인력 비자(E7-3) 노동자들의 한국 취업과정은 고수의 사람장사가 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윤용진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 하청지회 사무장은 “큰 빚을 지고 입국해서 쉽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 처한 노동자들이 많다”라고 전했다.

E7-3 비자 노동자들은 불리한 ‘이면계약’ 서명을 강요받았다. 법무부 지침에 따라 입국 전 국민총소득(GNI)의 80% 통상임금 270만 원(시급 12,919원)을 보장한다는 계약서를 써야 한다. 고용업체들은 입국 후 최저임금 계약서를 내밀었고 이주노동자들은 이를 거부할 수 없었다. 서명하지 않으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협박했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후청지회 사무장은 “스리랑카 노동자가 2월에 현지에서 한국 법무부 규정에 맞게 270만 원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불과 한 달 뒤 업체 강요로 210만 원 짜리 계약서를 썼다”라고 폭로했다.

이김춘택 사무장은 “입국한 뒤에 강제로 쓰는 계약서가 정당한 계약서라고 할 수 있다. 원래 계약서와 다르게 지급해 발생하는 부족분은 체불임금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강

조했다.

김그루 연구위원은 조선업 이주노동자 문제의 핵심은 ‘인신매매’, ‘취업사기’, ‘강제노동’, ‘비인간적 생활환경’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조선사들이 하청노동자 임금을 올리고 현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그루 연구위원은 ▲이주노동자 송출·송입 공공성 확보 ▲숙소 사전검증·관리감독 강화 ▲근로감독 강화·위반 시 업체 적극 제재 ▲권리구제 기준마련·담당부처 지정 ▲

전문 상담·통번역 지원체계 마련 ▲하청노동자 임금인상 등 노동력 확보 정책 ▲이민정책으로서 이주노동자 정책 ▲원청사 책임·역할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면 안 되듯이 이주노동자 차별 또한 정당화할 수 없다”라며 “금속노조는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함께 조직화하면서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임금인상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13기

임원 선거 공고

금속노조 규약 제59조(임원의 선출) 및 선거관리규정 제6조(선거일 및 공고)에 따라 금속노조 13기 임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거일시 : 2023년 11월 21일(화) 06시 30분 ~ 11월 24일(금) 17시
2. 선출대상 :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일반 부위원장, 비정규 할당 부위원장, 여성 할당 부위원장
3. 후보 등록 기간 : 선거 공고 시부터 2023년 10월 30일(월) 14시까지
4. 입후보자 등록 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02-732-2318)
5. 입후보자 구비서류 :
 - 1)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 2) 조합활동 경력소개 1부
 - 3)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각종 자료

※ 세부 양식 및 내용은 금속노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안내(vote.kmwu.kr)

2023년 10월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서태욱 